

가족친화마을만들기를 위한 주민역량강화 방안

-살기좋은마을만들기를 위한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분석을 기초로-

A Study on the Plan to Reinforce the Resident's Capacity
to Build Family-Friendly Community

-Focused on Educational Program of Livable Community Building-

대전대학교 아동교육상담학과
교 수 차 성 란*

Dept. of Child Education and Counseling, Daejeon University
Professor Cha, Sung-Lan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주민역량강화 방안 |
| II. 선행연구 고찰 | V. 결론 및 제언 |
| III. 살기좋은마을만들기
교육프로그램 | 참고문헌 |

〈Abstract〉

This study proposes a plan for the residents to have a capacity to build a family-friendly community on their own. As there is not a family-friendly community related program developed for "Resident's Capacity Reinforcement", three programs closely related with family-friendly community program were analyzed instead. Analysis showed that first, the community spirit must be emphasized to maintain the characteristics of family care with social support. Second, educational contents must reflect resident's capacity elements that are necessary for participating in the family friendly community building stages. Third, there is a necessity for systematization of education courses into beginner, intermediate, and specialty course given education is continued. Fourth, there is a necessity for the curriculum that may be used for the family friendly community building to foster human and material resource management ability. Therefore, framework for the educational contents suggests X-axis and Y-axis

* 주저자, 교신저자: 차성란 (sicha@dju.kr)

presented by person-business and morphogenic-morphostatic as referred to Ulrich(1997)'s human resource model.

However, this study has limitations because educational program of 'livable community building' are analyzed for the plan to reinforce capacity to build family-friendly community. There is a necessity for continuing to improve the program by in depth interview or social survey with residents and leader in community.

Key Words : 가족친화마을(family-friendly community), 주민역량강화(resident's capacity reinforcing), 살기좋은마을만들기(livable community building), 교육프로그램(educational program)

I. 서론

정부는 우리 사회의 저출산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방법론으로 가족친화 환경조성을 정책수단으로 삼아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2007년부터 3개년에 걸쳐 강원도 영월, 충북 논산, 그리고 전남 장흥의 3개 지역에서 가족형 마을만들기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였다. 가시적 성과라는 점에서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지만 가족친화마을만들기의 시발점으로서 의미를 지닌다. 2008년에는 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 촉진법을 제정하여 가족친화직장환경, 가족친화마을환경, 가족친화문화조성의 세 가지 주 사업내용을 제시하였다. 모성관련 법적 제도의 보완, 가족친화기업인증제, 패밀리데이 등을 구체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전국의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육아품앗이로부터 시작하여 가족품앗이, 공동육아나눔터, 그리고 가족친화마을만들기 사업으로 가족친화환경조성사업을 확대, 발전시키고 있으며, 서울시의 경우 가족친화의 한 유형으로서 이웃사촌한가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은 정부에서 주도한다거나 정부위탁사업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사업 확대의 근원적 한계를 안고 있으며, 주민주도

적 특성을 지닌 사업의 경우에도 아직은 주민 참여의 양적, 질적 수준이 낮아 가족친화사회 환경조성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지 못한 상태이다.

한편 가족친화마을만들기와 유사한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는 2006년부터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하에 정책적으로 추진되어 오고 있는 사업이다.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사업의 경우 정부는 지난 2009년도에 시범도시 7개, 시범마을 16개, 성공모델 지원사업 3개 등에 총 144 억원을 지원했다(www.city.go.kr). 그동안 여러 성공 사례가 보고된 바 있으나 사업 시작 후 5년여가 지난 지금 깨닫게 된 중요한 사실은 정부 주도의 수직적, 상의하달식의 사업 방식은 마을만들기의 지속적 유지 및 주민참여의 확산이 어렵다는 점이다. 이에 주민주도의 민주적이며 하의상달식의 사업 방식으로 방향전환을 꾀하고 있다.

마을만들기가 지역에서 주민주도적으로 진행되어야만 하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다. 첫째, 마을만들기는 특정의 사업목표 달성후 완료되는 사업이 아니다. 주민의 삶의 방식으로서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지속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삶터에 관련된 주민들의 요구를 스스로 파악하여 대처하는 것이 삶의

질 향상에 있어 가장 효과적이다. 셋째, 주민들의 참여에 의한 공동체 의식과 나눔의 실천은 마을만들기를 가능케하는 기초적 요소이다(차성란, 2010b). 주민주도적 사업은 정부주도의 사업방식과 비교하면 주민의견수렴을 거치기 위한 시간이 더 소요되며, 주민자치를 위한 주민역량이 배양되기 전까지의 시행착오 가능성 등,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소요예산이 가장 적절한 곳에 사용됨으로써 경제적 효율성을 지니며, 의견수렴과 갈등해결의 과정을 거쳐, 주민들 사이의 유대가 형성되고 자치역량이 강화되는 강점을 지닌다.

가족친화마을은 ‘다양한 가족들이 가족돌봄을 지역사회에서 공유할 수 있고, 다양한 세대의 쾌적한 거주가 유지될 수 있는 공간과 관계를 구축해가는 마을’(차성란, 2010a)로 정의된다. 가족친화마을은 살기좋은 마을만들기의 9개 유형 중 ‘가족형’으로서 가족친화마을을 다른 유형과 구분하는 가장 큰 특징은 가족돌봄에 있다. 가족돌봄이 지역사회 내에서 해결되려면 주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 스스로 지역내 가족돌봄과 관련된 문제를 인식하고 참여하는 주민주도적 사업방식이 성패의 중요한 관건이 된다. 가족친화마을의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면 가족친화마을 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들의 자치적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가 될 것이다. 상의하달이 아닌 하의상달의 자율성에 기초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양한 방법과 내용으로 체계화된 교육과정을 통해 ‘사람’을 발굴,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때문에 ‘마을만들기’는 심지어 ‘사람만들기’로 간주된다. 마을만들기가 적어도 정부 정책사업으로서가 아니라 주민의 자발적 활동으로 유지될 수 있기 위해서는 사람을 키우는 것이 핵심적 요소이다(차성란, 2010a). 광주 북구, 전남 순천과 함께, 전북 진안군의 마을만들기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해

당 지역의 ‘으뜸마을가꾸기’ 사업에서 교육과 훈련을 중시한 때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곽동원, 2008).

하지만 지금까지의 관련연구를 살펴보면 농촌지역의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박경, 2007), 마을만들기를 위한 주민교육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 연구(김종동, 2008), 도시정비를 위한 시민역량(이영아·변필성·류승한·최병남, 2008),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역량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한 연구(소순열, 2007) 정도가 있다. 그러나 가족친화마을환경과 관련해서는 가족친화마을의 모델 제시(차성란, 2010a), 가족친화마을 활성화를 위한 기관의 역할(차성란, 2010b), 살기좋은마을 사례(김선미, 2010) 등을 다룬 것이 전부이며, 주민의 자치역량강화 또는 교육프로그램 등을 다룬 연구는 전무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는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들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의 특성을 파악하고, 살고싶은마을과 가족친화마을의 비교분석을 기초로 가족친화마을환경의 조성을 위한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의 기본원칙과 교육과정의 구조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II. 선행연구 고찰

1. 가족친화마을과 살기좋은마을만들기

살기좋은마을만들기는 도시와 농촌지역에 따라 시작시기 및 사업특성에 있어 차이가 있다. 도시지역의 경우 정부가 90년대 초반부터 주도해 온 하향식 도시계획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시작되었다. YMCA, 도시연대, 한국도시연구소 등 시민단체와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민관 협력형태로 안전한 통학로 확보, 재래시장 활성화, 담장허물기, 쌈지공원조성, 아파트공동체운동 등 다양한 유형으로 진행시켜 왔다. 시

민단체가 이들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었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주민자치 역량을 만들어내는 것이었다. 이에 비해 농촌지역에서는 2002년경부터 정부의 행정예산 지원을 계기로 하여 사업이 착수되었으며, 2006년부터는 참여정부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설치,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를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인력, 조직, 예산 등을 지원하면서 적극 추진되기 시작하였다(양진영, 2007). 거주환경이나 소득수준의 지역격차를 줄이려는 정부의 국토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된 것이다. 2006년에 행정안전부가 살기좋은지역만들기의 8개 모형, 즉 산업형, 교육형, 정보형, 생태형, 전통형, 문화형, 관광형, 건강형을 제시하였으며, 뒤늦게 여성가족부의 요청으로 ‘가족형’ 모델이 추가되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009년에 지역발전위원회로 변경되었고, 살기좋은지역만들기의 큰 틀 아래 살기좋은 도시만들기,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가고싶은 섬만들기 등의 각기 상이한 사업명을 사용하여, 주관부처의 사업특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도시만들기를 주관하고 있는 국토해양부는 도시만들기와 마을만들기를 규모에 따른 차이로 구분하고 있다. 즉, 마을만들기는 ‘대규모의 도시가 아닌, 서로를 알 수 있는 규모의 친근한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주민참여활동으로 개념화하고 있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살기좋은지역만들기를 가족돌봄을 특징으로 하는 ‘가족친화마을만들기’로 특성화하고 있는 것이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는 크게 ‘공간의 질’과 ‘삶의 질’ 제고라는 비전 하에 추진되며(마상열, 2007), 마을 재 디자인 및 실행, 삶의 질 향상, 지역공동체 복원 및 형성, 지역소득기반 창출(김태영 외, 2009) 등이 사업의 구성요소가 된다. 하지만 실제 국토연구원에서 성공적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소개한 대부분의 사례들이 놀이터만들기, 공원조성, 통학로만들기, 거리가꾸

기(차성란, 2010b) 등 물리적 환경개선이 주를 이루고 있다. 살기좋은 마을만들기의 대표적 성공사례로 꼽히는 광주 북구의 경우, 쾌적한 마을, 따뜻한 공동체, 앞서가는 사람, 활력있는 마을이라는 4대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하지만 2009년도에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총 22개 사업 중 마을의 물리적환경개선과 관련된 사업이 절반인 11개이며, 문화예술 및 주민편익도모를 위한 사업이 11개로 나타나고 있다. 2010년도에는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꽃길만들기, 정원조성, 음악회, 도서관 활성화 프로그램을 실시한 정도이다(광주 북구청, 2009).

살기좋은마을은 가족친화마을과 마찬가지로 따뜻한 이웃공동체를 구성요소로 한다. 지역내 공동체의식은 다수 주민들이 참여했을 때 마을만들기가 완성된다. 하지만 살기좋은마을만들기 사례들을 살펴보면(구자인, 2007; 박경, 2007; 박종숙, 2001) 도시지역의 물리적 거주환경개선, 농촌지역의 농가소득증대라는 1차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지역리더의 역할과 역량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가족친화마을은 행정안전부의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에서 제시한 9개 마을 유형 중 가족형 마을로 제안된 형태이다. 가족친화마을은 거주, 근로, 여가의 세 차원에서 접근한다는 점에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와 동일하지만, 자녀보육 및 노인돌봄과 같은 가족돌봄의 요구를 마을단위 내에서 충족시킨다는 점이 가장 두드러진 핵심적 요소이다. 가족친화마을환경의 다른 요소 즉, 교통, 교육, 건강, 복지 등의 환경조건은 다양한 마을만들기의 유형을 통해 공간환경의 질 개선이라는 차원에서 접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족친화마을의 개념은 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 촉진법에서 “노인양양이나 아동양육 등 가족 돌봄을 지역사회차원에서 분담할 수 있는

환경 및 다양한 가족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시설과 공간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가족생활 여건이 갖추어진 마을환경"을 의미한다(법률지식정보시스템). 보건복지가족부(2009)는 모델 개발 연구에서 가족친화마을을 "아이들을 마음 놓고 키울 수 있고 어른들이 오래 살고 싶은 마을"이라 정의하였으며, 가족친화 마을만들기란 "주민이 주체가 되어 다양한 가족의 공존과 가족에게 필요한 환경 및 관계를 만들며, 여기에 행정과 지역사회가 지원되는 것"으로 보았다. 홍승아 등(2007)은 가족친화적 지역사회를 '가족의 책임수행과 가족생활을 영위하는 공간 또는 공동체가 가족책임의 수행과 가족생활을 적극 지원하는 지역사회'로 정의하였다. 이상에서 가족친화마을 개념의 공통점은 가족돌봄 또는 가족책임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다. 그리고 지역사회를 통해 사회적 지원을 하겠다는 방법론에서의 공통점이다.

차성란(2010a)은 통합, 공동체성, 살림을 가족친화마을의 이념으로 제시하며,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마을로서 '다양한 가족들이 가족돌봄을 지역사회에서 공유할 수 있고, 다양한 세대의 쾌적한 거주가 유지될 수 있는 공간과 관계, 그리고 지속가능한 삶의 기반을 구축해가는 마을'이라 정의하였다. 홍승아·김혜영·류연규·소마나오코·조순주·진미정(2007)이 가족친화적지역사회의 구성요소로 안전성, 편리성, 접근성, 환경친화성을 제시한 것과 일치한다.

가족친화마을은 가족생활환경으로서의 '풍요로운 물리적 공간환경,' 그리고 그러한 기초 위에 '가족원의 욕구충족을 위한 활동의 지역사회 내 공유'라는 두 개념이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족돌봄의 사회적 해결은 접근방식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해볼 수 있다. 하나는 사회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시설 및 서비스를 행정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방법이다. 다른 하나는 사회적 지원을 주민들 사이의 자

원교환망을 통해 주민자치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다. 박소현·최이명·서한림·김효정(2006)의 연구는 첫 번째 방식으로의 해결을 가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방과후 보육시설, 주간 보육시설 확충, 재가복지 서비스 등을 가족형 살기 좋은마을의 세부추진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시설설치, 공간확충, 복지 프로그램 운영 등의 추진 과제는 공간확보, 시설설치비용, 프로그램운영예산 등 많은 복지예산을 필요로 한다. 여성가족부의 가족형 마을만들기 시범사업 관련 연구(김선미·이승미, 2010)에서도 '주민의 요구를 스스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을 가까이에서 접할수록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기술하고 있으며, 지침서에는 '자체 내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전담기구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06 붙임자료 1: 5). 두번째는 지역사회 내 공동체의식을 토대로 가족돌봄과 가족기능수행에 필요한 요구를 가족품앗이로 해결하는 방식이다. 현재 전국의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추진되고 있는 가족친화마을은 주민들 사이의 다양한 가족품앗이를 활성화시키는데 노력이 경주되고 있다. 주민들 사이의 품의 교환으로 인한 주민 상호간 교류가 증진되고 지역사회의 유대감이 형성되어야, 이를 기반으로 가족돌봄이 지역사회 주민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자원교환망으로의 주민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첫걸음으로 교육품, 육아품을 촉진시키기 위한 마중물로서의 프로그램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지역내 주민들의 자원교환망으로서의 주민네트워크는 품의 교환이라는 외형적 활동만으로 충분조건을 갖추지 못한다. 품의 교환이 하나의 자원교환망내에서 자치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주민들 사이의 공동체 의식, 유대관계가 요구된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역시 마을의 문제를 합의하고, 합의된 문제를 해

(표 1) 가족친화마을만들기와 살기좋은마을만들기 특징 비교

구 분		가족친화마을만들기	살기좋은마을만들기
배경		저출산	지역불균형해소
1차 목표	도시	가족돌봄	물리적 거주환경개선
	농촌	자녀돌봄보다는 노인돌봄	지역경제활성화를 통한 농가소득증대
과정		가족돌봄을 지역사회 내 가족품앗이로 해결하기 위해 주민 다수의 참여가 중요	지역 공동체의식을 위해 주민 다수의 참여가 바람직
		지역리더의 역할비중이 살기좋은마을만들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	지역리더의 역할비중이 가족친화마을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음

결하기 위해서는 주민들 사이의 협력, 유대관계가 요구된다. 즉, 공동체의식이 요구된다. 하지만 가족친화마을만들기에 있어 공동체의식은 가장 핵심적 특징인 가족돌봄을 지역주민들 스스로 해결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선결적, 필수 요소이다.

2. 주민역량강화

1) 주민역량강화의 개념

능력이 구체적인 영역에서의 기술과 지식 등을 일컫는다면, 역량은 그러한 능력들의 총체적인 결합으로 특정한 문제나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힘을 말한다. 지역사회개발과 관련하여 역량강화(capacity-building)라는 개념은 1980년대 중반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농촌사회 발전을 위한 개발 노력들이 오히려 지역의 외부자원에 대한 의존성, 주민들의 자립능력 훼손이라는 부정적 결과를 낳은데 따른 것이다.

유학열·박철희·한상욱·조봉운(2008)에 의하면 지역주민역량은 주민들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찾아내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으로 개념화되며, 이를 위해 주민들은 주체적 지위를 갖고 지역문제해결과 관련된 다른 주체, 즉 행정이나 외부전문가들과 대등한 권한을 유지하며 상호작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필요로 한다. 이에 비해 시민역량은 개인이 구조적으로 주어지는

기회를 통해 자신의 보람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일반적 능력을 의미한다. 좁은 의미로 보면 경제적으로는 인적 자본(human capital)을 정치적으로는 분권화된 권력, 사회문화적으로는 능동적인 지역공동체의 참여와 시민문화의 창조능력 등을 통칭한다고 할 수 있다(이재혁, 2007).

Ballantyne·Labelle·Rudgard(2000)는 역량개발을 개인, 집단, 조직, 기관 등이 문제를 해결하고 목표를 성취하는 능력을 개발하는 과정으로 정의하였다. 특히 지역발전에서 역량을 구성하는 요소는 구성원의 기술, 지식, 가치관, 인식, 개인 및 조직 사이의 협력과 상호작용 등으로 형성되는 사회적 네트워크 등으로 파악된다(Thomson·Pepperdine, 2003에서 재인용). Chaskin 등(2001)은 지역공동체 역량을 ‘어떤 주어진 지역공동체의 집합적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거나 유지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인적자본, 조직자원, 그리고 사회자본간의 상호작용’으로 정의하였다. 이상에서 주민역량강화란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 것으로서 능력은 인적자원, 조직자원, 사회적자원으로 구성됨을 알 수 있다.

2) 주민역량의 요소

역량의 요소는 역량수준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역량수준은 개인, 조

직, 체계 등으로 위계화할 수 있으며, 각 수준에 따라 개인은 지식, 기술, 능력 등을, 조직 차원에서는 내부구조, 절차, 인적자원개발, 반복적인 기획, 점검, 평가과정, 조직간, 조직내 화합 등을, 제도 차원에서는 정책, 법규, 지원 정책 등을 요소의 예로 들 수 있다(최길수, 2005)

유정규·황수철(2004)에 의하면 지역리더들 스스로가 평가한 결과, 33%가 경영관리능력(성실성, 공정성, 창의성, 유능성 등), 31.8%는 조직력(비전제시, 의지력, 헌신성, 타인에 대한 배려 등), 20.5%는 정보력(외부와의 연계, 인터넷 활용, 자기학습능력 등), 13.6%는 기타(도덕성, 전문성, 신뢰성 등), 1.1%는 기술력(품목별 영농기술, 첨단농업기술 등)이 필요한 것으로 답하였다. 이에 비해 전문가가 지적한 리더의 자질은 합리적 사고능력 26%, 창의적 발상능력 16%, 기획능력 14%, 조직능력 14%, 헌신성 9%로 나타났다.

박경·정재호·유정규·송두범·조수희(2008: 9)에 의하면 지역리더는 비전제시자, 지역계획자(planner), 지역내외부의 네트워크(networker), 조직관리자(organizer), 각 주체간의 의사소통자(communicator), 지역자원발굴자로서의 자질과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하였다. 조필규(2009)는 마을만들기 추진을 위한 3가지 조건으로 마을만들기에 대한 명확한 철학, 마을만들기를 위한 기술습득, 마을만들기와 관련된 법·제도에 대한 이해를 들고 있다.

이미나(1998)는 이와 대조적으로 지역사회구성원들이 자기통제의 기술과 습관을 갖추어야 하며, 또한 타인에 대한 봉사과 배려를 할 수 있는 민감성을 키워야 한다고 하여 지역주민들의 공동체 의식 형성에 필요한 요소로 중요한 역량요소로 지적하였다.

III. 살기좋은마을만들기 교육프로그램

본 연구는 가족친화마을만들기를 위한 주민역량강화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가족친화마을만들기 교육프로그램이 아닌 살기좋은마을만들기 교육프로그램을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그 이유는 첫째, 여성가족부 지원으로 이루어진 ‘가족형’ 마을만들기는 가족친화마을만들기가 아닌 살기좋은마을만들기로 진행되었다. 선정된 지역 여건상 가족돌봄을 특징으로 하는 가족친화마을로 진행되기 어려웠다. 둘째,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중심이 되어 진행되는 가족친화마을만들기는 사업 프로그램 운영이 주를 이룬다. 즉 마을만들기를 주민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데 필요한 주민 교육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가족친화마을만들기를 위한 주민역량강화 방안을 도출함에 있어 분석대상으로 삼을 교육프로그램이 축적되지 못한 상태이다.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교육프로그램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받는 지역의 프로그램을 선정하였다. 선정기준은 임의적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그 이유는 첫째, 정부의 예산지원을 받고 있는 모든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해 일률적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2006년도에 마을만들기 사업이 본격화된 이후로, 그동안 마을만들기의 모델, 성공적 추진을 위한 요인 등에 대해 현장과 이론경험을 토대로 정립해 가고 있는 상태이다.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인지되는 몇 개 지역이 있지만 아직 평가를 받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마을만들기 교육프로그램은 아직 개발 단계에 있다. 마을만들기에 있어 주민자치적인 방식이 중요하다는 점, 그리고 이를 위해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전국 각지에서 지역여건에 따라 주민교육을 실시하고 있

다. 마을만들기 사업은 지역 운동으로서 마을 만들기를 주도하거나 지원하고 있는 기관에서 개발, 운영 담당자들이 지역여건에 맞게 맞춤형으로 현재도 교육프로그램을 끊임없이 개발, 보완 중에 있다. 아직까지 마을만들기를 위한 주민역량강화의 전체적인 구조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분석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은 첫째, 지방자치 단체와 민간단체가 협력하여 개발, 시행하고 있는 전남 광주시 및 순천시의 주민자치교육프로그램, 둘째, 간사제도 및 내발적 발전이라는 마을만들기 전략으로 인지도가 높은 전북 진안군 교육프로그램, 셋째, 경기도 안산시의 좋은 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코디네이터 교육프로그램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1) 광주 YMCA의 좋은동네시민대학

광주 YMCA “좋은동네만들기” 운동은 2000년 YMCA 회원 8명이 ‘좋은동네만드는사람들’이라는 학습공동체 활동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들은 매월 2회 진행되는 학습결과물로 ‘좋은동네 만들기, 왜 공동체인가?’라는 책자를 발간하였다. 그리고 지역공동체 좋은동네만들기에 여럿이 함께 일할 줄 아는 변화추진자를 양성하는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좋은동네시민대학을 설립했다. 2002년 10월 교육이 시작되었으며, 교육과정의 특징은 주민들이 원하는 동네에 찾아가 교육하는 방식, 일방적 강의가 아니라 양방향 토론형의 흥미유발형 학습, 학습시간과 과목을 지역 실정에 맞게 조절하는 맞춤형 운영 등이다.

교육내용은 마을만들기의 단계를 동기화, 체계화, 참여 및 실천의 세 단계로 구분할 때 첫 단계인 동기화 단계의 활동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기화 단계의 세부활동으로는 주민 및 지역의 특성 파악하기, 마을의 현안 문제에 대한 합의, 세부실행 목표수립 등으로 구성된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과 변화추진자의 사명은 지역주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마을만들기를 위한 주민으로서의 책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과정이다. 이는 사업참여에 대한 동기부여에 기여할 것이다. 우리동네 다 시돌아보기, 다함께 돌자 동네한바퀴-우리 동네이야기는 지역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활동이며, 우리동네 디자인하기와 무엇을 함께 할까?는 마을 현안 문제에 대한 합의와 실행 목표를 수립하는 과정에 해당된다. 세부내용에서 회의규칙 정하기는 마을만들기 두번째 단계인 체계화단계에서 회의진행능력과, 그리고 주민과 갈등해결찾기는 갈등관리능력과 연관된 내용이다. 이를 통해 회의진행 및 갈등관리 능력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마을만들기 주민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회의진행 및 갈등관리능력 배양을 위해 좀 더 체계적인 교육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광주 지역 주민교육사례가 갖는 특징은 첫째, 국내외 마을만들기 사례는 마을만들기에 대한 경험이 없는 주민들에게 실제 사례를 접하게 함으로써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이해와 앞으로 담당해야 할 업무파악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둘째, 동네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현장탐방과 지도그리기라는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지역 현장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learning by doing 식 교육을 하고 있다. 셋째, 입학식 및 졸업식을 학습자 스스로 진행케 함으로써 주민이 주인의식을 갖고 사업에 임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케 할 수 있다. 이는 주민주도적인 마을만들기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

2) 순천시 주민자치대학

2004년 이후 순천시는 민간 시민단체(순천 YMCA, 순천 YWCA, 순천 KYC, 그린순천 21)와 연계하여 마을만들기 관련 사업을 적극 펼쳐오고 있다. 순천시의 마을만들기에서 강조하

〈표 2〉 광주 YMCA 좋은 동네 시민대학

강좌	과목명	주요 내용
1강좌	Ice Breaking	마음열기, 관계트기
	입학식	주민스스로 진행하는 입학식
	주민자치센터와 좋은동네만들기	- 주민자치센터의 기능과 주민자치위원의 역할 - 좋은동네만들기 중심내용과 상호역할
2강좌	국내외 마을만들기 사례연구	- 선진국의 마을만들기 사례연구 - 국내 마을만들기 사례연구
3강좌	우리동네 다시 돌아보기	- 반(조)별 다함께 돌아 동네한바퀴 미션수행 - 반(조)별 미션 수행 발표, 설문지 작성
4강좌	다함께돌아동네한바퀴 -우리동네이야기-	- 동네 탐방과 카메라 켈리(1,000컷 사진) - 동네 현황 파악, 우리 동네 지도그리기 - 동네이야기 수집을 통한 동네특성 파악
5강좌	우리동네 디자인하기	- 주민 스스로 추진할 수 있는 일감 선정 - 스티커 기법, 지도를 통한 동네 디자인 - 걸리버 여행
6강좌	무엇을 함께 할까?	- 회의규칙정하기 - 동네과제 찾기 및 우선과제 선정 - 실천방안 찾기
7강좌	변화추진자(골목대장)의 사명과 역할	- 주민과 갈등해결 찾기 - 개인사명 선언문 만들기
	졸업식 및 다과회	졸업장 수여, 졸업가 제창, 종합보고서 전달

출처: 정의춘(2007)

고 있는 것은 첫째, 사람만들기이다. 마을만들기의 공유공간에 대한 관심과 이웃과의 공동문제해결에 대한 긍정적 인식, 책임감 등을 지닌 마을사람을 육성하는 것이다. 둘째, 삶터가꾸기이다. 지역 생활환경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공간, 시설, 장소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셋째, 공동체이루기이다. 지역내 공동문제 해결과 개선을 위해 이웃과의 관계 회복, 의사소통 경로 확립, 활동체계 조성 등 마을주민들의 공동체 조직을 만드는 것이다. 2005년 5월 순천시 삼산동을 비롯하여 14개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된 지역에서 주민자치위원, 이·통장, 부녀회원, 담당공무원, 시의원 등이 함께 교육을 받았다.

주민자치대학의 교육과정은 교육수강생들의

거주 마을을 행정, 시민단체, 전문가가 함께 돌아보고 마을의 문제점 및 가치와 잠재자원을 발굴해내는 ‘동네한바퀴’라는 명칭의 프로그램이다. 교육과정을 통해 마을에 대한 열의와 애정을 갖게 하고, 기존 마을만들기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마을만들기의 역량을 키워나가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이명규, 2008).

교육내용은 광주의 주민자치학교 교육과정과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다. 마을만들기 체계화 단계에서 필요한 회의진행 및 갈등관리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마을만들기 교육이 반복적,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심화과정으로서 별도의 교육과정을 구성,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순천시 주민자치대학은 몇 가지 특징이 있

〈표 3〉 순천시 주민자치대학

순서	과목명	주요내용	강사진
1강	Ice Breaking	관계트기, 모듬설정	레크레이션 강사
	입학식	학습자 스스로 진행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마을만들기 및 자치활동	전문가, 대학교수
2강	선진사례연구	국내선진사례 및 일본의 마을만들기	사례연구가
	평생학습도시 순천	평생학습마을만들기 사례	전문가
3강	동네 한바퀴 우리동네알기	강사진의 동네 탐방후 참여자 전체 동네특성을 찾기 위한 현장탐방, 우리동네 개성찾기	향토연구가 도시설계사
4강	우리동네 디자인하기	동네한바퀴 후 창의적인 동네 디자인하기	도시조경전문가
5강	우리마을 우리가 바꾸자	디자인결과에 대해 민주적 토의를 통해 우선순위와 방법 선정	민주시민교육 전문가
6강	변화추진자 사명선언	참여자 개인의 역할과 사명 정하기	리더십교육 전문가
	수료식	학습자 스스로 진행	

출처: 이명규(2008)

다. 첫째, 교육수강생이 모이면 원하는 시간과 내용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한다. 둘째, 교육 전 사전 설문조사를 통해 현안문제를 미리 파악하여 교육내용에 반영하는 지역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셋째, 강의 위주의 교육을 탈피해 모든 교육생이 적극 참여하는 방식의 수업방법으로 진행한다. 넷째, 주민자치대학 수료후 자치대학 강사진이 후속 프로그램 진행에 전문적 지원을 실시한다(이명규, 2008).

순천시의 주민자치대학 교육과정에는 지역 공동체만들기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지역공동체만들기를 위해 주말 유소년축구리그를 통한 공동체 정신 함양, 사랑의 체험농장 운영을 통해 지역의 빈곤가정에 채소류를 전달하는(이명규, 2008) 복지서비스 차원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3. 안산 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코디네이터 교육

안산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교육내용(안산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 2009)은 마을만들기 코디네이터로서 사업추진과정에서 필요한 주요 활동과 기능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요약적으로 담고 있다. 교육내용 중 주민공동체 형성 및 민주시민교육, 동네한바퀴, 마을의 보물찾기 및 마을지도 그리기, 마을의제 우선순위정하기 등은 마을만들기 동기화단계에서 활용될 수 있는 내용이다. 의사결정, 마을신문 및 콘텐츠 제작 등은 마을만들기가 이미 시작된 지역에서 주민조직을 좀 더 체계화하거나 홍보하는 등 미래전략적인 활동과 관련된다. 마을만들기를 위한 주민교육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 교육이어야 한다고 보면 단계별로 구분하여 일반교육과 전문적인 하위 기능영역에 대한 교육으로 나누어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표 4〉 안산시 좋은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코디네이터 교육

구분	교육내용
1강	-함께 열기(참가자 소개 및 오리엔테이션) * 주민공동체 형성을 위한 마을만들기
2강	*선부동 마을정원만들기 사례를 통한 마을만들기에 대한 상상력 높이기
3강	*주민역량강화, 지도력 성장을 위한 교육훈련 : 민주시민교육, 리더십 프로그램의 실제
4강	*동네한바퀴 :우리마을 보물(물적, 인적자원)찾기 및 마을지도 그리기 :우리 마을의 의제 우선순위 정하기
5강	*마을신문 및 콘텐츠 제작 배우기 :인터뷰하기, 기사작성, 사진촬영방법 등 이론과 실제 기법을 배우고 코디네이터 교육과정의 활동 내용을 신문으로 제작해본다

출처: 안산시 좋은마을만들기 지원센터(2009).

4. 진안군 으뜸마을가꾸기 교육

진안군은 농촌지역으로서 마을만들기 사업을 독자적으로 개발 추진해 온 지자체이다. 간사제도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성공 요소인 것으로 평가되며, 내발적 발전의 방법론이 주목을 받고 있다(김정흠, 2009). 현장활동가인 구자인(2007)은 파스(PAS)로 모델화하였다. 즉 “행정이 시행하는 모든 프로젝트(Project)나 프로그램(Program) 사업을 매개로 지역주민(Actor)의 역량을 강화하고 인재를 키우며 민과 관, 전문가 사이의 협력시스템(System)을 구축”하는 것을 바람직한 마을만들기 방법론으로 제시하였다. 파스(PAS) 모델을 기반으로 주민, 전문가, 공무원이 함께 학습, 토론하는 ‘상호학습’은 주민역량강화에 기여한다. 상호학습을 통해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공동의 합의점을 찾아가는 훈련을 하게 되며, 그 과정에서 마을의 인재가 육성될 수 있다(김정흠, 2009).

진안군의 교육프로그램(구자인, 2007)은 마을만들기의 동기화-체계화-참여 및 실천의 3단계 중 체계화를 위한 기능과 관련된 내용을 담

고 있다. 마을리더로서 참여주민과의 의사소통의 중요성 및 방법, 주민들 사이의 갈등을 관리하는 방법, 회의진행에 필요한 방법 등이 해당된다. 또한 진안군의 주민교육프로그램은 집합식 및 강의식 교육을 지양하며, 실사구시형 주제 선정, 토론과 실습 위주의 진행, 마을로 찾아가는 현장밀착형 마을좌담회, 공동사업추진 등(김정흠, 2009) 교육효과를 높이고 현장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주민교육 방법론을 도입하였다.

이상 광주 북구, 전남 순천, 전북 진안, 경기도 안산 등 4개 지역의 살기좋은 마을만들기을 위한 주민역량 및 코디네이터 교육 프로그램을 살펴보았다. 프로그램 분석 결과 첫째, 도시지역을 기반으로 한 주민교육프로그램은 물리적인 거주환경개선에 일차적인 목표를 두고 있었다. 동네 돌아보기, 동네한바퀴, 동네디자인하기, 마을지도그리기 등의 교육내용에서 그러한 목표를 파악할 수 있었다. 둘째, 농촌지역에 기반을 둔 마을만들기 주민교육프로그램은 지역경제활성화를 방안이 중요한 내용임을 알 수 있었다. 진안군 교육프로그램의 농특산물 상설매장 추진방향에 대한 논의가 그 사

레이다. 셋째, 공동체의식과 다수의 주민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교육내용은 매우 부족한 상태였다. 광주 YMCA의 좋은동네만들기 팀은 마을만들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이자 과제를 주민공동체의식 형성에 두고 있으나 주민교육프로그램에는 실질적으로 공동체의식 향상을 위한 내용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넷째, 주민보다는 주민리더양성에 초점을 둔 교육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변화추진자의 사명과 역할,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 마을리더와 소통 등의 교육내용에서 이러한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분석한 4개 지역 교육 프로그램들은 모두 마을만들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과제를 마을만들기의 목표로 정할 것이며, 주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할 것인지에 초점을 둔 교육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마을의 목표가 되는 하나의 사업을 이끌어 내고, 그것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능들로 구성된 프로젝트 관리 특성의 교육과정인 것이다. 차이점이 있다면 전북 진안 지역의 경

우, 마을만들기 초기를 지난 단계에서 마을만들기 운영 조직을 체계화하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마을만들기는 일회성 사업으로 완결되는 것이 아니므로, 마을 주민들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마을의 과제들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기술들을 습득케 하기 위한 교육내용으로 구성된 것이다. 그리고 경기도 안산 지역의 경우는 코디네이터를 교육대상으로 한만큼 홍보 활동에 필요한 기능을 포함시키고 있다. 가족친화마을만들기는 가족돌봄을 주요한 특징으로 하지만 기본적으로 살기좋은마을이 갖추어야 할 편리한 거주환경, 경제적 일자리, 즐거운 여가환경의 세 요소도 갖추어야 한다. 이는 살기좋은마을만들기의 주민교육 프로그램과 기본 교육틀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 가족친화마을만들기의 가족돌봄 특징이 주민들 사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프로그램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표 5〉 진안군 교육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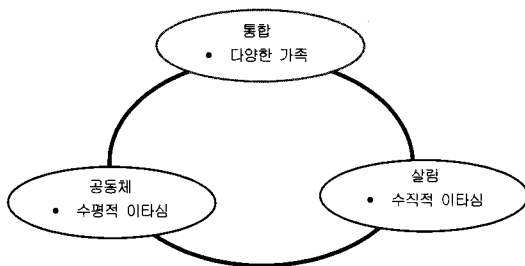
일 시		주 제
1일차	1교시	마음 열기, 오리엔테이션
	2교시	강의1: 마을리더와 소통(커뮤니케이션)
	3교시	강의2: 마을갈등 해소 방안
	4교시	강의3: 효과적인 회의 기법
	5교시	발표/토론1: 2011년 마을만들기 사업 계획
	6교시	조별 토론1: 우리 마을의 현재와 미래
2일차	1교시	발표/토론2: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설립 구상
	2교시	발표/토론3: 마을간사 제도 개선방안
	3교시	발표/토론4: 농특산물 상설매장 추진방향
	4교시	조별토론2: 진안군 마을만들기 발전방향
	5교시	조별 발표 및 종합토론
	6교시	수료

출처: 진안군(2010)

IV. 가족친화마을만들기를 위한 주민역량강화 방안

1. 가족친화마을의 비전을 전하는 주민교육

가족친화마을은 가족돌봄의 지역사회 공유라는 차별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가족친화마을에서의 생활을 통해 질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어야 한다. 현대사회에서 가족형태의 다양화, 개인주의적인 삶으로 인한 사회 문제, 녹색거주환경에 대한 요구 등을 마을생활에서 충족시켜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차성관(2010a)은 가족친화마을에 통합, 공동체성, 살림의 기본이념이 전제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첫째, 통합은 다양한 유형의 가족들을 이해, 수용하고, 그들이 거주환경에서 불편함없이 가족기능이 수행될 수 있는 공간 및 시설, 시스템에 대한 배려를 의미한다. 둘째, 공동체정신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시민의식과 역할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는 것을 의미하며, 이웃에 대한 배려, 공익 존중을 바탕으로 한다. 셋째, 살림은 지속가능한 삶의 방식으로서 가족친화마을이 따뜻함, 편리함, 풍요로움, 자연친화적인 마을이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출처: 차성관(2010a)

(그림 1) 가족친화마을의 기본 이념

2. 가족친화마을의 차별성을 키워나갈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가족친화마을이 살기좋은 마을만들기와 구별되는 차별성은 가족돌봄에 있다. 가족돌봄이 지역사회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해결될 수 있으려면 다음의 세 가지 요소에 대한 교육적 배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마을만들기에 비해 가족친화마을 교육프로그램은 주민들의 공동체의식을 배양할 수 있어야 한다. 가족친화마을의 특징인 가족돌봄의 지역사회내 해결이 주민자치적으로 이루어지려면 다수의 주민들이 나눔과 배려의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가족품앗이를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활동 참여의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learning by doing** 형태의 교육프로그램이 구성되어야 한다. 지역사회내 가족돌봄은 주민들 사이의 가족품앗이 또는 지역화폐사용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을 가능케하기 위해서는 도시민들에게 낯선 경험인 서비스나 물품의 교환이 익숙하고 편리한 경험이 될 수 있도록 참여형 교육기회를 자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셋째,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가족친화마을만들기는 계속 진행형의 형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주민자치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주민들의 발전되는 새로운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하며, 이는 새로운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으로 대처될 수 있어야 한다.

3. 가족친화마을만들기 단계별 활동수행에 필요한 주민역량요소들이 반영되는 주민교육 프로그램

마을만들기 사업추진을 위한 단계별 활동은 여러 연구자들(김선기·이소영, 2007; 보건복지

가족부, 2009; 이명규, 2006) 등 여러 연구자들이 제시하였다. 광주, 순천, 진안 등 마을만들기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 틀은 연세대 도시문제연구소(2007)의 7단계 모형이다. 7단계는 1단계 꿈그리기, 2단계 보물찾기, 3단계 조직화 및 합의, 4단계 민주적 합의체 및 전략수립, 5단계 실천, 6단계 나눔, 7단계 평가 및 환류의 일곱 단계로 구성된다. 차성란은 마을만들기를 동기화, 체계화, 참여와 실천의 세단계로 구분하여 동기화 단계에는 마을의 비전만들기와 관련된 주민과 지역의 특성 파악하기, 마

을현안 문제협의, 세부실행목표수립을 포함시켰다. 체계화단계는 인력개발 및 조직화를 위해 주민합의체만들기, 자원네트워크, 주민교육 등을 포함시켰다. 참여와 실천단계는 자발적 참여와 주민들 사이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실행과 피드백이 포함된다(차성란, 2010b). 마을만들기 단계별 각 활동과 주민교육내용을 연관시키면 다음의 <표 6>과 같다.

동기화단계에서 동기유발을 위한 교육내용으로는 마을의 비전만들기, 이웃과의 소통, 나눔, 배려를 가능케 할 수 있는 공동체의식, 지

<표 6> 마을만들기 단계별 주민교육내용

단계	목표	활동	교육
동기화	동기유발	교육	-마을비전만들기 -공동체의식, 시민의식 교육, 생태의식 -현장방문, 벤치마킹
	마을실태파악	조사·분석	-마을지도그리기 -디자인게임
	마을문제협의	의견수렴 및 조정	-토론 및 회의진행기법 -정보수집 및 분석 -의사결정
체계화	합의체만들기	조직화	-리더십 -관련법규, 제도 및 정부정책 -사회적 환경이해
	민관네트워크	인적, 물적 자원개발	-행정규제, 법, 조례 등
		중재	-갈등관리 -문제해결
	주민 및 리더양성	인력발굴	-의사소통 -나와 타인에 대한 이해(MBTI, 애니어그램 등)
		교육	-교수법 -프리젠테이션
	전문가자문	네트워킹	-사회적 교섭력
행정지원	행정업무	-인터넷활용 -문서작성	
유지 및 확산	실행	사업기획 및 집행	-프로그램 기획(문화프로그램, 가족품앗이 등) -창의적 발상
		홍보	-홍보 -마케팅
	피드백	평가	-경영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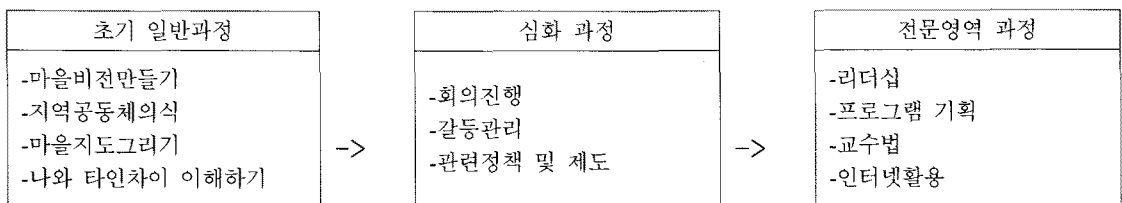
속가능한 마을로 유지될 수 있기 위한 친환경적 생태의식을 필요로 한다. 쾌적하고 편리한 마을환경조성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직접적인 현장방문, 가족친화마을만들기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될 아이디어 제공차원에서의 벤치마킹이 동기유발을 위한 교육내용으로 포함될 수 있다. 마을실태파악을 위한 조사, 분석활동과 관련하여 마을지도그리기, 디자인 게임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마을문제합의를 위한 의견수렴 및 조정활동과 관련된 교육내용으로는 토론 및 회의진행기법, 정보수집 및 분석, 의사결정 방법에 대한 훈련을 포함할 수 있다. 체계화단계에서 합의체만들기를 위한 조직화 활동을 위해 리더십, 물리적 거주환경 조성과 관련된 법규, 제도 또는 정부의 정책에 대한 내용, 사회적 환경에 대한 이해 등을 교육내용으로 할 수 있다. 민관네트워크는 인적, 물적 자원개발 활동으로서 이와 관련하여 행정규제, 법이나 조례 등에 대한 내용을 교육할 수 있다. 참여하고 있는 주민들 또는 주민과 리더, 주민과 행정가 등과의 갈등관리, 문제해결방법론에 대한 교육을 포함할 수 있다. 주민교육 및 주민리더양성을 위한 인력발굴 활동으로 의사소통,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교육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주민들 사이의 교육품앗이를 위해서는 교수법, 프리젠테이션 기법 등에 대한 습득이 필요할 것이다. 전문가의 자원을 네트워크하기 위한 내용으로는 사회적 교섭력에 관한 교육을 포함할 수 있다. 기타 합의체의 행정업무를 위한

인터넷 활용방법, 문서작성법 등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다. 가족친화마을만들기가 지속적으로 유지 및 확산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프로그램이 기획, 집행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프로그램 기획, 창의적 발상법에 대한 교육이 요구된다. 홍보는 참여하는 주민들에게 활동 결과에 대한 만족감을 줄 수 있으며,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피드백을 위한 평가활동이 이루어지며, 이를 위한 경영평가를 교육내용으로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4. 지속적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의 체계화

초기 동기화, 체계화 등 단계별 요구되는 역량교육을 위해 초보과정, 심화과정, 전문영역과정 등으로 세분화된 교육과정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주민교육은 일회성으로 완결되는 것이 아니며 마을만들기가 유지되고 있는 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으로 지속되어야 한다. 초보과정을 수료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마을만들기를 체계화하는데 필요한 회의진행, 의사결정, 계획수립 등과 관련된 내용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

관련활동에는 프레젠테이션, 창의적 아이디어 발상 등 전문적 기술과 지식을 필요로 하는 영역이 있다. 이러한 역량을 위해 별도의 전문영역과정이 개설되어야 한다. 초기 동기화, 체계화 등 단계별 요구되는 역량교육을 위해 초보과정, 심화과정, 전문영역과정 등으로 세분



〈그림 2〉 단계별 교육과정 사례

화된 교육과정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주민교육은 일회성으로 완결되는 것이 아니며 마을만들기가 유지되고 있는 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으로 지속되어야 한다. 초보과정을 수료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마을만들기를 체계화하는데 필요한 회의진행, 의사결정, 계획수립 등과 관련된 내용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 관련활동에는 프레젠테이션, 창의적 아이디어 발상 등 전문적 기술과 지식을 필요로 하는 영역이 있다. 이러한 역량을 위해 별도의 전문영역과정을 개설할 수 있다.

5. 가족친화마을만들기에 활용될 인적, 물적 자원의 관리능력배양에 기여하도록 구성된 주민교육프로그램

지역주민의 역량강화는 가족친화마을만들기에 요구되는 인적, 물적자원의 관리능력을 향상시키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에 경영학 분야에서 인적자원개발실무자의 역할을 다룬 Ulrich(1997)의 ‘경쟁력있는 조직구축을 위한

인적자원 역할모델’ 연구를 적용코자 한다. Ulrich의 모델은 X축의 좌우에 프로세스와 사람을 Y축에 일상적/운영과 미래/전략을 배치하였다. 그에 따라 사람-일상/운영에는 조직구성원 기여관리, 프로세스-일상/운영에는 확고한 하부구조관리, 사람-미래/전략에는 인적자원에 대한 변화, 프로세스-미래/전략에는 전략적 인적자원관리를 배치하였다. 이를 토대로 구성한 가족친화마을을 위한 주민역량강화모델은 다음과 같다. 이 모델에서 X축의 좌우는 업무-사람, Y축의 상하는 변화지향적관리활동-안정지향적관리활동을 의미한다. 사람-안정지향적관리활동에는 지역주민의 ‘인적자원관리’와 관련된 교육으로서 시민의식, 공동체의식, 나와 타인에 대한 이해, 갈등관리, 지역주민의 기본적인 기능과 지식에 대한 교육을 포함한다. 업무-안정지향적관리활동에는 조직의 민관네트워크 구축, 지역주민의 잠재적인 지식, 기능, 태도 자원발굴, 업무추진능력으로서 회의진행, 의사결정 기술을 포함한다. 사람-변화지향적관리활동에는 지역주민 중 새로운 인적자원의 발굴,

		변화지향적관리활동	
업무 (구조)	조직의 사업개선·확장 -신규사업의 기획추진 -조직구조의 개선 -벤치마킹 -사업홍보 -마케팅	지역주민의 인적자원변화 -새로운 인적자원발굴 -주민리더육성 -바람직한 의식·태도로의 변화 및 개혁	사람
	조직의 업무유지 -민관네트워크구축, -지역주민의 잠재적인 지식, 기능, 태도 자원발굴 -업무추진능력으로서 회의진행, 의사결정	지역주민의 인적자원유지 -시민의식, 공동체의식 -나와 타인에 대한 이해 -갈등관리 -지역주민의 기본적인 기능, 지식	
		안정지향적관리활동	

<그림 3> Ulrich 의 인적자원역할모델에 기초한 주민교육프로그램 구조들

주민리더육성, 바람직한 의식이나 태도로의 변화 및 개혁 등을 포함한다. 업무-변화지향적관리활동에는 조직내 신규사업의 기획추진, 조직구조의 개선, 사업홍보 및 마케팅 등을 포함한다.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가족친화마을만들기가 주민자치적으로 이루어져야 사업의 효율성 및 지속성을 지닐 수 있다는 생각 아래, 주민자치적인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가족친화마을만들기를 위한 주민교육프로그램은 전무한 상태였다. 이에 문헌연구를 통해 가족친화마을만들기와 살기좋은마을만들기를 비교하고, 기존의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주민교육프로그램을 분석하여, 가족돌봄의 지역사회내 해결이라는 가족친화마을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주민역량강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대상인 살기좋은마을만들기의 주민교육프로그램은 성공적 사례로 알려져 있는 전남 광주, 전남 순천, 전북 진안, 안산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얻은 결과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전남 광주, 전남 순천, 전북 진안, 경기도 안산시의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주민교육프로그램을 살펴본 결과 첫째, 이들 지역의 경우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정책적 목표에 부합되는 주민교육프로그램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났다. 예를 들면 도시의 경우 물리적인 거주환경개선, 농촌인 경우 지역경제활성화에 일차적인 목표를 두고 있었다. 둘째, 공동체의식과 다수의 주민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체험형의 교육내용은 매우 부족한 상태였다. 가족친화마을은 가족돌봄이 지역사회내에서 주민들에 의해 해결되는 일상적이며, 실제적인 활동이 이루어져야하는

마을이다. 가족친화마을만들기를 위한 주민교육프로그램에는 learning by doing 형태의 교육내용이 보완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셋째, 가족친화마을의 가족돌봄은 주민들 사이에 영유아 자녀 또는 노년기 부모에 대한 돌봄 품앗이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특히 품앗이의 경험이 부족하고, 품앗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좋지 않은 도시지역, 대단위 아파트 단지 지역의 가족친화마을만들기 주민교육에 품앗이 교육내용이 포함되어야 함을 말해준다. 품앗이 교육은 주민들이 직접 경험해 보고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참여형 수업이 권장된다. 넷째, 주민리더양성에 초점을 둔 교육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가족돌봄이 지역사회내에서 해결되는 가족친화마을이 되려면 다수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살기좋은마을만들기와 비교할 때 가족친화마을만들기를 위한 주민교육프로그램은 지역리더 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을 위한 보편적 교육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가족친화마을만들기를 위한 주민역량강화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원칙과 구조틀을 지니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첫째, 가족친화마을의 비전을 전달하는 주민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마을의 비전은 통합, 공동체의식, 살림의 세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통합은 현대사회에 나타나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까지 아우르는 사회적 통합을 일컫는다. 공동체의식은 수평적 이타심으로서 지역주민들의 나눔과 배려가 이루어지는 마을의 비전이다. 살림은 수직적 이타심으로서 현세대 뿐 아니라 미래세대의 삶의 질까지도 고려하는 환경친화적 삶의 방식이 이루어지는 마을을 꿈꾸게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가족친화마을의 차별성을 키워나갈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요구된다. 가족돌봄의 지역사회내 해결이라는 마을의 차별성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은 공동체의식에 대한 강조, 다수의 주민들에게 다양한 참여학습(learning by doing) 기회를 제공하기, 가족친화마을만들기가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하기 위한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에 대한 교육 등의 요소들을 주민역량강화 방안으로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가족친화마을만들기 단계별 활동수행에 필요한 주민역량요소를 반영하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기존의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교육프로그램들은 주로 마을만들기 동기화단계에 필요한 주민역량요소들을 중심으로 교육내용이 구성되어 있었다. 가족친화마을만들기가 진행되는 단계별 과정에서 주민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동기화단계 뿐 아니라 체계화 단계, 유지 및 확산단계에서 요구되는 마을만들기 활동과 그에 따른 주민역량요소들을 교육프로그램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넷째, 가족친화마을만들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체계화된 교육과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가족친화마을만들기가 진행되는 초기의 동기화 단계에서는 마을의 비전만들기, 공동체의식, 시민의식, 마을자원 파악에 요구되는 활동들을 포함하는 초보과정의 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체계화단계에서는 주민들의 의사결정 합의를체를 구조화하고 확립하는데 필요한 토론 및 회의진행 방식, 갈등관리, 관련정책 및 제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심화과정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그리고 리더십, 프로그램 기획, 교수법 등 주민리더나 참여하고 있는 활동내용에 따라 소수의 주민참여자들이 요구하는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을 교육내용으로 하는 전문영역과정을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다.

다섯째, 가족친화마을만들기에 활용될 수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의 관리능력 배양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바람직할 것이다. 가

족친화마을만들기를 위해 작동하는 의사결정 합의체 및 참여하는 주민들을 총체적 관점에서 하나의 체계로 파악할 수 있다. Ulrich 의 인적 자원역할모델을 근거로 마을만들기 운영체계를 변화지향적-안정지향적 체계, 그리고 인적, 물적(업무) 자원관리를 수직과 수평의 양축으로 하는 주민교육 내용의 구조들을 제시하였다.

앞으로의 연구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주민역량강화에서 고려해야 할 원칙과 구조들을 실증적 자료로 확인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나아가 구체적인 주민교육프로그램 개발로 이어질 필요가 있다. 실증적 자료는 지역 주민, 지역리더, 그리고 마을만들기 지원 경험이 있는 실무자들의 의견과 설문조사의 방법을 통해 수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문헌연구라는 2차적 자료에만 의존한 본 연구의 제한점을 극복케 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강용배(2004). 농촌마을공동체의 역량강화 사례연구. 한국정책과학회보, 8(4), 5-26.
- 2) 곽동원(2008). 주민주도형 마을만들기와 행정의 역할에 관한 연구-전북 진안군 마을만들기 사례를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농업개발대학원 석사논문.
- 3) 광주북구청(2010). 광주북구청 2009 워크숍(미간행).
- 4) 구자인(2007). 진안군 마을만들기의 경험과 과제. PPT 발표자료(미간행).
- 5) 구자인(2007). 현장중심 경영의 강화와 PAS(PAS) 모델, 한국농촌공사 사보 흙사랑 물사랑, 7호
- 6) 김선미·김소영(2010). 살기 좋은 마을의 거점에 관한 사례연구: 마을도서관과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가족친화적 활동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4(1), 73-96.

- 7) 김선미·이승미(2010). ‘가족형’ 마을만들기 시범 사업 사례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4(4), 101-126.
- 8) 김정흠(2009). 농촌형 거버넌스 구축과 지방의회의 역할에 관한 연구-‘진안군 마을만들기’사업을 중심으로. 전북대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 9) 김종동(2008). 주민참여형 마을만들기를 위한 주민교육의 특성에 관한 연구-도시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10) 마상열(2007).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세부추진 전략 수립. 경남발전연구원.
- 11) 박경(2007). 마을만들기 리더 육성의 필요성과 추진방안 -충청남도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라운드테이블.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지원협의회.
- 12) 박경·정재호·유정규·송두범·조수희(2008). 충청남도 농촌지역 리더육성 프로그램 실태 및 개발방안. 충남발전연구원 지역인적자원개발 지원센터.
- 13) 박은식(2008). 농촌마을 지도자의 리더십역량 향상 교육프로그램. 농촌진흥청.
- 14) 박종숙(2001). 살기좋은 우리동네 1: 내집 마당에서 골목으로, 동네로, 지역으로 -대구 삼덕동 골목공동체. 국토연구원 국토 236, 104-108.
- 15) 소순열(2007). 주민참여형 지역발전과 주민역량강화. 지역과 농업 2호, 125-146.
- 16) 안산시 좋은마을만들기 지원센터(2009). 마을 코디네이터 교육: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 그 속에 상상력 더하기. 안산시 좋은마을만들기 지원센터.
- 17) 양진영(2007). 한국과 일본의 마을만들기 비교분석에 관한 연구-광주광역시 북구와 동경도 세타가야구를 중심으로-. 광주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18) 박소현·최이명·서한림·김효정(2006). 가족친화 마을환경 개념 및 평가지표에 관한 연구. 여성가족부.
- 19) 우윤석(2008).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과정-주민참여활성화. 경기도 인재개발원.
- 20) 유학열·박철희·한상욱·조봉운(2008). 부여읍 주민혁신역량강화 추진 방안. 충남발전연구원.
- 21) 이명규(2008). 도시·마을만들기 학습 프로그램의 현황과 발전방향-순천시 사례를 중심으로.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라운드테이블-시민참여도시만들기를 위한 학습프로그램: 현황 및 발전방향. 살고싶은도시만들기 지원협의회.
- 22) 이삼열(2008).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성공매뉴얼. 경기도인재개발원.
- 23) 이송지·김혜장·이경란·곽영선·정영화(2009). 가족친화마을만들기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 보건복지가족부 연구보고서.
- 24) 이영아·변필성·류승한·최병남(2008). 시민참여형 도시정비를 위한 시민역량 강화방안. 국토연구원.
- 25) 이재혁(2007). 시민사회의 변화와 사회적 자본, 그리고 시민역량. 교육인적자원부.
- 26) 정의춘(2007). 마을만들기 운동의 지속화를 위한 광주시의 동단위 네트워크 구성과 주민교육 사례. 도시와빈곤, 84호, 47-54.
- 27) 조필규(2009). 일본 마을만들기의 특징과 운영실태. 경기도시공사(미간행)
- 28) 진안군(2010). 주민교육 총괄보고서. 진안군(미간행).
- 29) 차성란(2010a). 가족친화마을만들기를 위한 모델 및 핵심요소.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8(2), 63-76.
- 30) 차성란(2010b). 주민주도적인 가족친화마을만들기를 위한 기관의 역할-살기좋은마을만들기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4(4), 77-100.
- 31) 최길수(2005). 지방분권시대에 있어서 자치역량개발에 관한 연구 : 종합적 접근.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2(1), 141-165.
- 32) 김태영 외(2009).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를 위

- 한 삶의 질 향상 매뉴얼. 행정자치부.
- 33) 행정자치부(2007).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성공 매뉴얼 개발 연구. 연세대학교 도시문제연구소.
- 34) 홍승아·김혜영·류연규·소마나오코·조순주·진미정(2007).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모형개발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35) 홍영란(2007). 사회적 자본의 정책 의제화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인적자원부.
- 36) Ballantyne, P., Labelle, R. & Rudgard, S.(2000). *Information and Knowledge Management: Challenges for capacity builders*, Policy Management Brief 11. European Centre for Development Policy Management, Maastricht.
- 37) Thomson, D. & Pepperdine, S.(2003). *Community Capacity for Riparian Restoration*. Discussion Paper. Land and Water Australia, Canberra.
- 38) Chaskin Robert J. et al.(2001). *Building Community Capacity*. New York: Aldine De Gruyter.
- 39) 도시포털 (<http://city.go.kr>)

- 투 고 일 : 2011년 6월 23일
- 심 사 일 : 2011년 7월 14일
- 심사완료일 : 2011년 8월 8일